

# 전주효사랑가족요양병원 장례식장 반대 주민과 추진위 간 갈등 고조

### 반대위 저지 집회에 추진위 맞불 집회로 양측 간 충돌 우려 '긴장'

전주효사랑가족요양병원 장례식장 운영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이 장례식장 결사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병원 측에 우호적인 효사랑장례문화원 추진위원회가 완산경찰서에 지난 3일부터 집회를 신청하면서 양측 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5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효사랑장례문화원 추진위원회는 지난 30일 상가 앞 주차장 일대에서 장례식장 운영에 찬성하는 집회를 3일부터 실시한다고 신고했다.

효사랑장례문화원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7월 초부터 장례식장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계약을 진행했는데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어려워져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손 놓고 구경만 할 수 없어서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주장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역시 생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이다"며 "병원 측의 도청과 시청에서 나오는 결과를 지켜 보자는 말만 믿고 기다리고 있다"

발동에 불이 떨어졌다"고 덧붙였다.

전주 도심 한복판의 요양병원 장례식장 운영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28일째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병원 측에 동조하는 추진위원회의 맞불집회로 언제라도 양측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일촉즉발의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4일 오후 3시경 장례식장 반대위원회 관계자는 추진위원회가 배부할 예정이던 홍보물에 장례식장을 주민편의시설로 설명한

내용을 발견하고 극렬하게 항의하면서 한차례 소동이 일어났다.

반대위원회 관계자는 "누가 봐도 혐오시설이 분명한 장례식장이 어떻게 주민편의시설이 될 수 있느냐"며 "내가 여기서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장례식장 운영을 적극 저지하겠다"며 목적을 높였다.

이에 대해 추진위원회 집회장소를 찾은 병원 관계자는 "법원 판례로 볼 때 장례식장은 혐오시설이 아니라 편의시설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삽입된 문구다"며 "플랜카드를 통해 너무 혐오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상반된 의미로 사용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난 억울해요** 5일 한 남성이 전북지방경찰청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 남성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경찰관에게 돈을 뺏겼다가 전북경찰청장 면담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반면 해당 경찰관은 "일반적인 주장일 뿐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 덕진소방서, 폭염 대비 119구급대 운영

전주덕진소방서(서장 유우종)는 오는 9월 말까지 폭염환자 발생대비 119구급대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도내 119구급차량에는 열음조끼, 정제수, 전해질음액 등을 확보, 무더위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에 나서게 된다. 덕진소방서는 70여명의 구급

대원과 10대의 폭염대비 119구급차, 10종의 폭염 구급장비를 확보, 폭염에 따른 인명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 관계자는 "노약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삼가고 시원한 장소를 찾아 무더위를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완산소방서, 최신형 고가사다리차 배치

전주완산소방서(서장 제태환)는 층건물 소방안전 확보를 위해 최신형 고가사다리차(6억 상당)를 효자119안전센터에 배치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배치된 고가사다리차는 사다리 길이가 52m(아파트 17층 높이)로, 승강기에는 소방관 2명이 탑승

해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가 가능하다.

소방서는 이번에 배치된 고가사다리차가 기존 차량보다 조작법이 간단하고 각종 안전장비를 장착, 사다리 전개 속도 역시 더욱 빨라져 현장 대응 능력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뇌사 50대 남성 전북대병원서 장기기증 간·신장·각막 등 5명에 새 생명 선물

뇌사관정을 받은 50대 남성이 만성질환자 5명에게 거룩한 생명을 선물하고 영면했다.

5일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에 따르면 불의의 사고로 뇌사관정을 받은 류대길(52)씨가 간과 신장(2개) 각막 등의 장기기증을 통해 5명의 소중한 목숨을 살렸다.

류씨는 지난달 말 갑작스런 사고로 전북대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관정을 받았다.

류씨의 아내와 1남2녀의 자녀들은 평소 장기기증 의사를 밝힌 류씨의 유지를 받아들여 장기기증을 결정했다.

세례명이 노영인 류씨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로 성당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어려운 이웃과 함께 했으며 마지막 가는 길에는 장기기증을 통해 거룩한 생명을 선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류씨의 가족들은 "평소에 어려운 이웃과 함께 했고 성실하고 열심히 살았던 아버지가 마지막 가는 길에 큰 사랑을 주셨다"며 "새 생명을 받은 이들이 건강을 되찾아서 아버지의 삶이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대병원 장기이식센터 유희철(간담체이식외과) 센터장은 "소중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어렵고 힘든 결정을 내려준 고인과 유족들에게 이식환자를 대신해 감사드리며, 새 생명을 받은 환자들이 고인과 가족들의 숭고한 뜻을 기려 건강장수를 영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화물차 훔친 외국인 징역형 전주지법, 25일부터 2주 휴정

전주지법 형사3단독(정인재 부장판사)는 5일 술에 취해 화물차를 훔쳐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절도 등)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근로자 A(3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오후 4시40분께 완주군 봉동읍 한 자동차공장에서 출고를 앞둔 1t 화물트럭(시가 7800여만원 상당)을 훔쳐 타고 3km가량 운전하다 도로변 가로수와 인근 회사의 정문 외벽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방법원은 오는 25일부터 2주간 '하계 휴정'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법원은 하계 휴정 기간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 기일과 불구속 피고인에 대한 공판 기일 등 긴급하지 않거나 인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은 열지 않는다.

민원업무와 구속 사건의 형사재판,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구속·체포적부 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형사사건 등은 제외된다.

### 청년과 행정 소통창구 만든다

전주시 '청년희망단' 공모

전주시는 지역 청년들과 소통을 활성화하고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청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주시 청년희망단'을 오는 14일까지 2주간 공개모집한다.

전주시 청년희망단은 60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전주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과 전주시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사업장에 근무하는 청년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은 전주시 홈페이지의 고시/공고에서 '전주시 청년희망단 공개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지원신청서를 이메일로 제출하거나 구급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전주시는 청년들과 소통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부터 청년협력팀을 신설하고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청년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청년희망단은 청년 관련 각종 정책을 제안하고 청년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위원회로, 지역청년 의견 수렴 및 정책 제안, 청년문제 발굴, 조사, 개선방안 모색, 타지역 청년 단체 등과의 협력 및 교류 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청년희망단은 위원은 공개모집을 거쳐 오리엔테이션과 발대식을 개최, 분과를 구성하고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을 거치며 분과위원회별로 본격적인 청년정책 발굴 활동을 펴게 된다. 청년희망단에서 발굴된 정책은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뒤 전주시 청년정책으로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국번없이

#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vsc.or.kr \*전자우편 : jvsc@hanmail.net